2. 대학별고사 문항(문항카드)

가. 수시모집 논술전형

1) 인문계열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1]

<표 Ⅵ-1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통합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평가, 전문화, 인재상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600자 내외, 배점 30점)

==========

[가]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본성과 속성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폴리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폴리스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다른 전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합체다. 폴리스는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민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시민이란 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달라, 민주 정체(政體)에서 시민인 사람이 과두 정체에서는 시민이 아닌 때도 더러 있곤 하다.

귀화한 시민처럼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민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류 외국인과 노예도 시민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만 시민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고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권리는 양국 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국인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한된 의미의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시민으로 등록되기에 너무 어린 아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노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지만, 아이에게는 '나이가 차지 않은', 노인에게는 '나이가 지난' 등의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제한 조건이 없는 의미에서의 시민을 찾고 있다.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공직은 연임이 불가능해서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취임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어떤 공직들, 이를테면 배심원이나 시민 전체가 참가하는 민회 회원직은 임기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은 공직자가 아니며,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자들을 공직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직자라고 불러서 구분하기로 하자.

정치체제들은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도 정치체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의한 시민은 민주 정체에 가장 잘 맞지만, 다른 정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시민인 것은 아니다. 다른 폴리스들에서는 민중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민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공직자만이 소송을 전담하여 맡아 법정에서 재판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이런 폴리스들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민주 정체 이외의 정체에서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자가 아니라 임기 제한이 있는 공직자가 민회 회원과 배심원이 되고,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의결권과 일부 사건 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폴리스의 시민이고, 폴리스는 자족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만큼 많은 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집합이다.

[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글 생활을 위해 '순화' 혹은 '바른 말 쓰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말에서는 '유권유언 무권무언'이 강요된 면이 있다.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인쇄소와 실밥이 사방으로 날리는 봉제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각종 도구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사용법은 그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대 문물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분야의 용어가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의 화살이 이들을 향하게 된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회에 가 보면 모든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뿐이다. 심지어는 아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문진은 우리말로 하면서 진료 기록지에는 알 수 없는 말로 휘갈겨 쓴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료인들은 영어로 된 용어로 소통하고 자막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법조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써 오던 법률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성이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다.

신라의 설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두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두는 한자로 쓰기는 하지만 온전한 한문은 아니다. 어순도 우리말식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문에는 쓰이지 않는 조사와 어미도 넣는 엉터리 한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이 영어는 영어인데 우리끼리만 잘 통하는 영어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대대로 물려 쓰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이 유지된 것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쟁이'들이 쓰는 말투를 이두에 빗대기도 한다. 전문용어들은 모두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조사와 어미만 우리말로 하니 그리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도무송'(Thomson)*과 재봉 일을 하는 이들의 '나나인치'(71)**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현대판 이두라 할 수 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위 '보그체'는 극단적인 이두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학문하는 이들의 전문 용어는 죄다 외국어를 써 이두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판 이두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용된다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기는 하지만 광고를 보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맞고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가장 중요한 언어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고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들을 쓸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도무송(Thomson): 인쇄 관련 기계를 만드는 회사명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
**나나인치(71): 특수한 재봉틀의 모델 번호 '71'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이 변형되어 쓰인 것.

[다] 현대 사상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불평등하다. 인간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생 동안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가 제기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마침내 사회는 지적으로 우수한 자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지적으로 열등한 자는 최하의 지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에게 맞는 의복을 입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손으로 해냈던 옛날의 제조 과정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수공업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기계공장, 대규모 제조업이 발흥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련과 비숙련 사이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졌고 드디어 전체 사회 자체가 분리되었다. 즉 기술진들의 지위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기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속 상승하였고, 단조로운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지위는 그들이 책임 맡은 일이 점점 단순해짐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갔다.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났지만,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비숙련 노동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비숙련 노동자의 일은 단순,

반복적일 뿐이어서 그들의 작업은 점차 기계화된 방법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기계는 더욱 용이한 형식으로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하급 노동자의 해고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기계의 발전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옛날에 기계화 산업이라고 불렸던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라는 단어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사무직이나 유통업에 정착하였다. 공장에서 시작된 기계화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과 상점에까지 기계화가 침투해 갔다. 사무실에서 회계직 종사자와 타이피스트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계산은 계산기가 맡게 되었고 타이피스트 역시 더 이상 말과 문자 사이를 매개해 주는 중개자로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적인 방식의 셀프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자 상점에서 점원의 수도 격감하기 시작했다.

옛 귀족주의가 붕괴하고 새로운 귀족주의가 탄생하는 잠깐의 시기 동안 하인은 사라졌었다. 이 평등주의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동료 인간의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즉 하인이 주인만큼 훌륭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분명했던 과도기였다. 평등주의를 조장한 조건들이 사라지자, 평등주의가 내세운 주장 중의 하나였던 하인 고용 금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하인직을 부활시켰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서 계급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계층화는 사회의 각 수준에서 재능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능력에 따라 엘리트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완전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오직 능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항거할 능력 또한 영구적으로 박탈당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 ‘君子不器’(군자불기)라는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그릇이란 각기 그 용도가 정해져서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밥그릇으로도 쓰고 국그릇으로도 쓴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릇(器)의 의미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군자의 품성에 관한 것이며 유가 사상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부정적으로 읽음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베버의 경우 기(器)는 한마디로 전문성입니다. 베버가 강조하는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성에 대한 거부가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으로 통한다는 것이 베버의 논리입니다. ‘군자불기’를 전문성과 직업적 윤리의 거부로 이해했습니다. 분업을 거부했고, 관료성을 거부했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학적 훈련을 거부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 사회가 비합리적이며 근대 사회 형성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스 베버의 논리가 자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전제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논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을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뛰어넘고 그것의 대안적 모색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재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막스 베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바로 효율성 논리이며 경쟁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가는 전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자본가는 어느 한 분야에 스스로 옥죄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자본이 벌이고 있는 사업 영역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작게는 다각적 경영, 문어발 확장이 그런 것이지요.

==========

3.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 읽는다.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 기준 2</td><td>-쓰기-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td><td>문제1</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td><td>문제1</td></tr>
<tr><td>성취 기준 2</td><td>-작문의 원리-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1</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여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td><td>문제1</td></tr>
<tr><td>성취 기준 2</td><td>-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가의 태도, 인간데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1</td></tr>
</table></td></tr>
</table>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심화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12심국01-01]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문제1
성취 기준2	-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 [12심국02-01]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심국02-02] 자신의 생각으로 논점을 구성한다. [12심국02-03]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한다.	문제1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사익과 공익의 문제 등)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문제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문제1

과목명: 사회문제탐구		관련
성취 기준 1	[12사탐01-01]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한다.	문제1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1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1

2. 교과명: 사회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학	마리스토텔레스	원문		3권1장	제시문 [가]	○
'도무송씨'와 '나나인치씨'를 만나다	한성우	국립국어원	2018	186~188	제시문 [나]	○
교육과 평등론	마이클 영	전예원	1986	130~180	제시문 [다]	○
능력주의	마이클 영	이매진	2020	165~238	제시문 [다]	○
강의:나의 동양 고전 독법	신영복	돌배개	2004	150~152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일부의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나]와 [다]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30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가]의 내용 요약

폴리스의 구성원인 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 같은 지역에 살거나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는 등의 조건은 외국인이나 노예에게도 적용되고, 어린 아이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은 제한적으로만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적인 의미에서 시민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폴리스마다 정체의 형태가 같지 않아 공직에 임기 제한이 있거나 공직자만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주된 견해나 관점이 제시문 [가]와 다른 제시문은 [다]와 [라]이다. [가]는 폴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 체제에 따라 시민의 정의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다양한 폴리스의 상황에 맞게 시민은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결권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시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폴리스의 운영에 필요한 시민들의 자질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시민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는 산업혁명의 도래 이후 능력 본위의 사회 분위기가 가속화되어 계층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하층으로 전락한 이들에 대한 멸시와 부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고 있기에, 이 점에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하는 제시문 [가]의 논지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라]는, 군자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군자불기'의 관점을 내세우며 이 구절에 대한 막스 베버의 관점을 비판하고 나아가 성공한 자본가들 역시 전문화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와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1.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가]의 주된 논지는 시민의 특징을 공직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폴리스라는 통합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격을 권리와 자질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다]는 능력주의라는 한정된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을 평가할 경우에 그 능력주의는 사회의 균열과 차별을 가져온다고 그 폐해를 비판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반대되는 관점을 나타낸다.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라]는 '군자불기'라는 구절의 뜻, 즉 군자라면 특정한 기능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통해 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는 근대 사

회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관점은 여러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의결권과 재판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만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특정한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가진 제시문 [가]와는 배치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2]

<표 Ⅵ-2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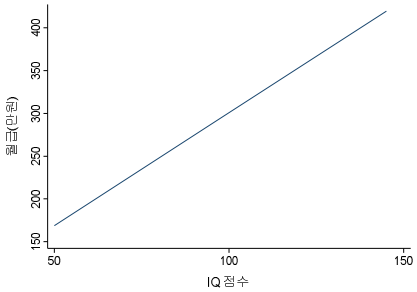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심화국어, 통합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핵심개념 및 용어	상관관계, 인과관계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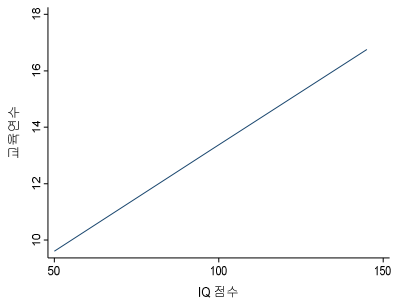
2. 문항 및 자료

【문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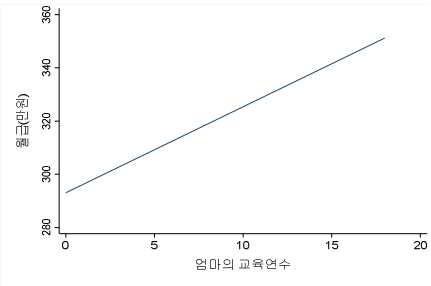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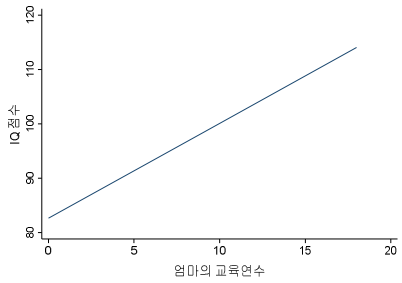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위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들 간의 관측된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와 엄마의 교육연수(敎育年數) 간의 관측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과 교육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주어진 네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3.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작문의 원리-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다.	문제2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12언매01-04]현대 사회의 소통 현사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제2

과목명: 심화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12심국01-01]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문제2
성취 기준2	-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 [12심국02-01]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심국02-02] 자신의 생각으로 논점을 구성한다. [12심국02-03]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한다.	문제2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2

과목명: 사회문제탐구		관련
성취 기준 1	[12사탐003-01] 문헌연구법(시사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문제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4-01]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문제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미국노동부			그림[1]~[4]	이

5. 문항 해설

○ 이 문제는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개요

이 문제는 수험생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림과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여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밑줄 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시문의 내용과 그림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밑줄 친 내용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문제의 핵심이다.

2. 해설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은 먼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IQ의 증가라는 변화만 있을 때 월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IQ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 이미 IQ 점수와 월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IQ 점수와 교육연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에서 보여주는 IQ 점수와 월급의 관계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라는 조건을 위배한 상태에서 관측되는 관계이므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 보여주는 양의 상관관계가 IQ만의 영향이 아닌 교육연수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제시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과 교육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월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는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그림 3]의 양의 상관관계는 다른 조건(제3의 매개변수)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는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IQ 점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교육연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림 3]에서 보이는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월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자녀의 IQ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만 나타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IQ 점수를 통해서만 자녀의 월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엄마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면 자녀의 IQ 점수는 [그림 4]의 기울기만큼 변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월급은 [그림 3]의 기울기만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그림 3]의 기울기를 [그림 4]의 기울기로 나누어서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자녀의 IQ 점수가 1.75점 증가하고, 자녀의 월급이 3만원 증가하면, IQ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월급은 1.7만원 증가하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2】** **위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근로자 본인과 엄마의 교육연수(敎育年數)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주어진 네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20

	영향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정답을 추론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채점할 것. 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음: 50점 ○ 50점 - 41점: 인과관계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임을 이해하고 문제의 그림들을 올바르게 해석한 경우. ○ 40점 - 31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나 문제의 그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경우. ○ 30점 - 0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의 그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 **2) 제시문의 연구결과와 [그림 3]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 40점** **○ 40점 - 31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림 3]에서 엄마의 교육연수가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한 경우.** ○ 30점 - 0점: 제시문의 연구결과와 [그림 3]에 논리적 모순이 없음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그림 3]과 [그림 4]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IQ가 월급에 미친 인과적 영향을 추론한 경우: 10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그림 2]를 보면 IQ 점수와 교육연수가 함께 변하고 있으므로 [그림 1]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IQ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다른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그림 3]과 [그림 4]를 함께 보면 엄마의 교육연수의 변화가 자녀의 IQ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만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그림 3]의 기울기를 [그림 4]의 기울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3]

<표 Ⅵ-3 서울시립대학교 문항정보 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통합사회,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평가, 전문화, 인재상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맹상군(孟嘗君)이 선비를 얻는 데 능하여 선비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힘 덕분에 사납고 무시무시한 진(秦)나라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 슬프구나! 맹상군은 단지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우두머리일 뿐이니, 어찌 어진 선비를 얻었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제(齊)나라의 강성함에 의지하여 참된 선비만 얻었더라면 마땅히 임금이 되어 진나라를 제압하였을 것이니, 계명구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계명구도의 무리들이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진정한 선비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까닭이다.

*계명구도(鷄鳴狗盜):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는 데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

[가]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본성과 속성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폴리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폴리스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다른 전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합체다. 폴리스는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민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시민이란 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달라, 민주 정체(政體)에서 시민인 사람이 과두 정체에서는 시민이 아닌 때도 더러 있곤 하다.

귀화한 시민처럼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민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류 외국인과 노예도 시민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만 시민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고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권리는 양국 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국인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한된 의미의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시민으로 등록되기에 너무 어린 아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노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지만, 아이에게는 '나이가 차지 않은', 노인에게는 '나이가 지난' 등의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제한 조건이

없는 의미에서의 시민을 찾고 있다.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공직은 연임이 불가능해서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취임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어떤 공직들, 이를테면 배심원이나 시민 전체가 참가하는 민회 회원직은 임기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은 공직자가 아니며,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자들을 공직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직자라고 불러서 구분하기로 하자.

정치체제들은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도 정치체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의한 시민은 민주 정체에 가장 잘 맞지만, 다른 정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시민인 것은 아니다. 다른 폴리스들에서는 민중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민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공직자만이 소송을 전담하여 맡아 법정에서 재판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이런 폴리스들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민주 정체 이외의 정체에서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자가 아니라 임기 제한이 있는 공직자가 민회 회원과 배심원이 되고,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의결권과 일부 사건 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폴리스의 시민이고, 폴리스는 자족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만큼 많은 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집합이다.

[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글 생활을 위해 '순화' 혹은 '바른 말 쓰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말에서는 '유권유언 무권무언'이 강요된 면이 있다.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인쇄소와 실밥이 사방으로 날리는 봉제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각종 도구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사용법은 그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대 문물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분야의 용어가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의 화살이 이들을 향하게 된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회에 가 보면 모든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뿐이다. 심지어는 아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문진은 우리말로 하면서 진료 기록지에는 알 수 없는 말로 휘갈겨 쓴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료인들은 영어로 된 용어로 소통하고 자막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법조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써 오던 법률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성이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다.

신라의 설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두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두는 한자로 쓰기는 하지만 온전한 한문은 아니다. 어순도 우리말식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문에는 쓰이지 않는 조사와 어미도 넣는 엉터리 한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이 영어는 영어인데 우리끼리만 잘 통하는 영어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대대로 물려 쓰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이 유지된 것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쟁이'들이 쓰는 말투를 이두에 빗대기도 한다. 전문용어들은 모두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조사와 어미만 우리말로 하니 그리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도무송'(Thomson)*과 재봉 일을 하는 이들의 '나나인치'(71)**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현대판 이두라 할 수 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위 '보그체'는 극단적인 이두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학문하는 이들의 전문 용어는 죄다 외국어를 써 이두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판 이두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용된다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기는 하지만 광고를 보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맞고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가장 중요한 언어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고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들을 쓸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도무송(Thomson): 인쇄 관련 기계를 만드는 회사명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

**나나인치(71): 특수한 재봉틀의 모델 번호 '71'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이 변형되어 쓰인 것.

[다] 현대 사상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불평등하다. 인간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생 동안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가 제기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마침내 사회는 지적으로 우수한 자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지적으로 열등한 자는 최하의 지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에게 맞는 의복을 입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손으로 해냈던 옛날의 제조 과정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수공업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기계공장, 대규모 제조업이 발흥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련과 비숙련 사이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졌고 드디어 전체 사회 자체가 분리되었다. 즉 기술진들의 지위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기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속 상승하였고, 단조로운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지위는 그들이 책임 맡은 일이 점점 단순해짐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갔다.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났지만,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비숙련 노동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비숙련 노동자의 일은 단순, 반복적일 뿐이어서 그들의 작업은 점차 기계화된 방법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기계는 더욱 용이한 형식으로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하급 노동자의 해고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기계의 발전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옛날에 기계화 산업이라고 불렸던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라는 단어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사무직이나 유통업에 정착하였다. 공장에서 시작된 기계화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과 상점에까지 기계화가 침투해 갔다. 사무실에서 회계직 종사자와 타이피스트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계산은 계산기가 맡게 되었고 타이피스트 역시 더 이상 말과 문자 사이를 매개해 주는 중개자로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적인 방식의 셀프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자 상점에서 점원의 수도 격감하기 시작했다.

옛 귀족주의가 붕괴하고 새로운 귀족주의가 탄생하는 잠깐의 시기 동안 하인은 사라졌었다. 이 평등주의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동료 인간의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즉 하인이 주인만큼 훌륭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분명했던 과도기였다. 평등주의를 조장한 조건들이 사라지자, 평등주의가 내세운 주장 중의 하나였던 하인 고용 금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하인직을 부활시켰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서 계급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계층화는 사회의 각 수준에서 재능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능력에 따라 엘리트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완전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오직 능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항거할 능력 또한 영구적으로 박탈당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 '君子不器'(군자불기)라는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그릇이란 각기 그 용도가 정해져서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밥그릇으로도 쓰고 국그릇으로도 쓴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릇(器)의 의미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군자의 품성에 관한 것이며 유가 사상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부정적으로 읽음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베버의 경우 기(器)는 한마디로 전문성입니다. 베버가 강조하는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성에 대한 거부가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으로 통한다는 것이 베버의 논리입니다. '군자불기'를 전문성과 직업적 윤리의 거부로 이해했습니다. 분업을 거부했고, 관료성을 거부했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학적 훈련을 거부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 사회가 비합리적이며 근대 사회 형성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스 베버의 논리가 자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전제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논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을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뛰어넘고 그것의 대안적 모색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재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막스 베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바로 효율성 논리이며 경쟁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가는 전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자본가는 어느 한 분야에 스스로 옥죄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자본이 벌이고 있는 사업 영역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작게는 다각적 경영, 문어발 확장이 그런 것이지요.

==========

3.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 읽는다.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td><td>문제3</td></tr>
<tr><td>성취 기준 2</td><td>-쓰기-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td><td>문제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td><td>문제3</td></tr>
<tr><td>성취 기준 2</td><td>-작문의 원리-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여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td><td>문제3</td></tr>
</table></td></tr>
</table>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가의 태도, 인간데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3

과목명: 심화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12심국01-01]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156쪽)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문제3
성취 기준2	-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 [12심국02-01]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심국02-02] 자신의 생각으로 논점을 구성한다. [12심국02-03]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한다.	문제3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을 탐색한다.	문제3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1-02]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제3
성취 기준 2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문제3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1]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학	마리스토텔레스	원문		3권1장	제시문 [가]	○
'도무송씨'와 '나나인치씨'를 만나다	한성우	국립국어원	2018	186~188	제시문 [나]	○
교육과 평등론	마이클 영	전예원	1986	130~180	제시문 [다]	○
능력주의	마이클 영	이매진	2020	165~238	제시문 [다]	○
강의:나의 동양 고전 독법	신영복	돌배개	2004	150~152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의 글은,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맹상군이 선비를 얻는 데 능하여 진나라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하지만 그가 얻은 이들은 어진 선비가 아니라 그저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무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을 수하에 두었기에 진정한 선비들이 그에게 모여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데 뛰어난 것 역시 특별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필자는 그러한 능력은 어진 선비가 해서는 안 될 재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이 글은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글의 주제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와 [라]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와 [나]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보기> 글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가]와 [나]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다]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저자의 뜻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맞춰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50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 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

[가] <보기>의 저자는 훌륭한 사람이란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양한 품성을 잘 갖춘 어진 선비라고 본다. 따라서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 [가]의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로만 시민을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의결과 재판 이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민은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 또한 갖고 있어서, 이를 수행함으로 자신이 속한 폴리스가 모든 시민들의 자족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도 시민을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과 재판이라는 한정된 능력과 자질로만은 시민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런 특정한 능력과 자질만으로 시민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시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이 아니라고 간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논지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정 능력과 자질 이외의 것들도 고려하여 폭넓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경우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면서 의결과 재판이라는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 뿐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시민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나]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우선시하여 그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면 외래어의 순화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나]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전문 영역 안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문영역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용어들이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용어가 전문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조건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국어 순화나 바른 말 쓰기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 순화, 바른 말 쓰기 운동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그 필요성을 따지기 어렵다. 의사소통의 쌍방이 단순히 개인 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라면 단순히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중요성, 인권 존중,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국어 순화와 바른 말 쓰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능력있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역사적 고비를 극복하는데 항상 요구되어 왔다. 산업혁명은 세습적인 신분질서를 무너뜨렸고,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면 그 누구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가 도달한 것이다. 능력주의가 아니라면 부의 세습, 특권의 되물림, 외모, 교육의 불평등, 요행 등과 같은 비능력적 요인이 이러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능력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사회시스템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최소화되며,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위의 <보기> 글에 찬성하기 위하여 제시문 [다]를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능력의 공정한 평가와 함께, 오직 능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이 지배되지 않도록 능력이외에도 다양한 자질이 존중받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라] 제시문 [라]는 군자라면 한 가지 특정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군자불기’의 의미를 옹호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전문성을 강조하여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자본가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기능에 갇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제시문 [라]의 입장은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 글의 주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에 하나의 전문적인 기능에만 머무르다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꾸준히 한 분야에 집중하는 장인정신이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첨단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지체 없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더 빠른 변화와 기술 발전이 예측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한우물파기’보다는 보다 여러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 [가]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들에서 서로 다르게 시민을 규정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골라내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정치체제에 적용 가능한 본질적인 정의를 내려야 시민, 그리고 그 시민으로 이루어진 폴리스와 이들을 운영하는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의결과 재판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특정한 능력과 소양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여겨 시민을 규정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폴리스 뿐 아니라 근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정의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훌륭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식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에

를 들어, 하나의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각 사람이 지닌 고유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여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안의 다양한 지위와 자리가 필요로 하는 각각의 고유한 조건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훌륭한 통치자라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과 지위 각각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기>의 저자는 개 짖는 소리나 닭 울음소리라는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는 두루 어진 성품을 가진 인재가 국가에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람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구성원들을 개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국가 전체의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제시문 [가]의 논거를 사용하여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 제시문 [나]는 해당 집단 내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굳이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에 대해 선비가 맹상군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보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 순화의 결과는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국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이라는 기준과 더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의 유입을 막으며 '순수'한 우리말의 보전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혹은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준의 혼용 또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슈퍼에서 사용하는 '카트(cart)'를 '장보기밀차'로, '티백(tea bag)으로 우려낸 차'를 '봉지차'로 순화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을 품게 된다. 아마도 순화어의 제정과 상관없이 '카트', '티백'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본래부터 언어는 순수한 존재도 아니거니와,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인 효과적인 소통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우선시할 경우 국어 순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선비도 필요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지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보기>의 견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다] 제시문 [다]는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사회구성원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균열시키고 차별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보상을 평등하게 실시한다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능력을 더 유용하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글에 반대하여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일상적 활동이 제한된 요즈음 들어 택배서비스, 돌봄 서비스, 플랫폼 노동 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와 생활고로 연이어 사망하고 있으며, 감염취약 시설들인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간호사나 보호사들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면에서 제시문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직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의 능력과 노력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라] 제시문 [라]는 한 가지 특정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것 같은 하나의 재주나 부분적인 기예를 가진 이들은 어진 선비가 아니라고 보는 <보기> 글의 요지, 즉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라]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막스 베버의 논리처럼 제대로 된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 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또한 그 아래에서는 성공한 자본가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적 경영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어발식 경영은 어떤 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한 분야에서의 확실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